

이사야 40:1-11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는 소식

1. 연말이지요? 아마도 ‘연말’ 하면 크리스마스를 반사적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여기저기 캐롤이 들리고, 사람들은 이 즐거운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가족, 친구, 연인 등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 이전의 4 주간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뭇 하는 절기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지요.
2. 사람들은 대강절보다는 성탄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저희 집 막내 같은 다섯살 아이가 물어본다면, “응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이야”라고 대답하는게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일까 성탄절을 무슨 예수님의 생신 잔치로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집안 큰 어르신의 칠순, 팔순이 되면, 일가 친척이 전부 모여서 축하하고, 큰 절을 리고, 집안 아이들 재롱을 보고, 또 밴드를 불러다 어르신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를 연주하며 잔치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확한 생신날이 몇월 몇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3.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 보면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12 월 25 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기념해 왔지만, 동방정교회는 우리와 다르게 1 월 6 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나시던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비교적 따뜻하긴 하지만, 그래도 밖에서 양을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수님 생신은 봄이나 여름이었을 겁니다.
4.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 생신도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한 날을 가지고 예수 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아서, 매년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떠들썩 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나름 자기들의 이유가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겠지만, 적어도 교회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00년 가까이 그 날짜에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은 이 성탄절 앞에 붙어 있는 4 주간의 대림절과 함께 생각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5. 대림절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절기의 순서라는게 나름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행적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해마다 연초에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출현을 기념하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좀 지나서 이른 봄쯤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있고, 이어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잘 안 챙기는 예수 승천절을

지나고 나면, 초여름 어간쯤 해서 성령강림절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을을 지나 연말이 가까워지면, 즉 마지막에는 대강절이 기다립니다. 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기의 흐름을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 신자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6. 이렇게 들으면 좀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재림과 성탄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탄절은 예수님 이야기의 시작에 대한 절기이고, 대강절은 그 마지막에 대한 절기니까 말이지요. 이걸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생신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요.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성에 대한 강조는 있지만, 생신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지요. 사도들이 말하는 “주님의 오심”은 항상 탄생인 아닌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것은 서신서 보다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나마도 가장 일찍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당연하지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7. 왜 초기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생신에 대해 관심이 없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재림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생신 같은 것은 천국에서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오직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초기 교회 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신 잔치 같은 것은 신경을 안쓴 것이지요.
8. 그럼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던 초기 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절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대림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지하 동굴 같은 곳에 숨어서 남몰래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라볼 것은, 오로지 하루 빨리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나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박해 속에도 꾸꿋하게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림절은 믿음과 인내를 견고하게 하는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의 끝에 바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9. 즉, 성탄절의 부록으로 대림절을 추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반대였을 겁니다. 대림절의 클라이막스로서 성탄절이 가능했을 가능성성이 더 크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4 주간의 대림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야, 드디어 예수님 생신이다”하면서 크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절기의 컨셉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연말 4 주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묵상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을 가진 끝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미 한 번 오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10. 그러니까 여기서 성탄절에 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생신잔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번째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은, 그들의 주관심사, 즉 두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 분, 이것 보십시오. 구약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한 번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두번째도 약속대로 반드시 오시지 않겠습니까?”라는 믿음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약속대로 한 번 오셨으니,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성탄의 메시지는, 박해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11. 그러므로 성탄절은 실제 예수님의 생신날은 아닐지 몰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날이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는 매우 중요한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성탄절은 대림절의 메시지와 따로 떼어서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은,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12. 그리고 역사를 반대로 몇 백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의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 백성들이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1-39 장까지 계속하여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 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특히나 30 장 이후에는 유다가 배출한 위대한 신앙인이자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라도 유다의 멸망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39 장은 암울한 심판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아,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을 결정하셨구나. ‘그냥 힘 뺄 것 없이, 포기하고 멸망하는게 차라리 속편하겠구나’, 이러면서 자포자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의외의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13. 1 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절망의 끝에서, 그 멸망과 심판이 확실히 선언된 뒤에,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반역한 백성을, 이 멸망해도 쌈 배교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난 걸까요? 2 절 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 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 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 다.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죄의 대가는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야 40 장의 하나님은 징계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벌 주는걸 너 무 좋아해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매를 때릴 때에도 이들이 자기 자녀임 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멸망과 징계가 결론이 아니고, 절망과 저주가 마지막이 아니었던 겁니다.

14. 절망의 끝에, 좌절과 비참의 끝에, 멸망의 끝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가 찾 아왔습니다. 70 년 포로의 시간이 지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지으면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고, 결국 이후 심판과 멸망을 통해 그들의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은 성취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예언이지만, 이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벌 받느라고 고생했다.”
15. 물론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순교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는 심판 이후에 다시 찾아올 위로와 소망 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는, 또 여러 세대를 넘어 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미래도 없는 죄인된 아담의 자손들을 향한 하늘의 심판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내려, 그 죄 값이 치러졌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용서와 위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16.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따라, 그 처절한 박해와 고난을, 오로지 충성과 믿음으로 버텨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멸망한 유다가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듯이, 사랑 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 막은 절망이 아닌 회복과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 죽고 끝나지 않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 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계절에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늘로 부터 오는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7.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메시지는 충만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 재림의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합니다. (반복)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끝에,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에 그 몸이 찔리고, 사자의 입에 살이 찢기고, 사지가 불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처럼, 이 땅에 아무 미련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법도, 이 땅에서는 통할 리가 없는 팔복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다가 스러져 갔습니다. 돌에 맞아 돌무더기가 자신의 무덤이 되어도, 여전히 하늘 소망을 포기하지 못했던 스데반처럼,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19. 이러한 삶이 쉬웠을까요? 아시는 대로, 그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전혀 영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고, 로마인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던 용기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그렇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의 조롱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보다는 세상의 권세에 더 열광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예수의 재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믿음을 품은 사람을 조롱할 것입니다.
20.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매스컴을 타며 유명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그 날에 정작 예수님은 안 오셨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경계해야겠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종말 신앙 자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예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1. 이사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소명을 나누었습니다. 3 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실까요? 앞에서 선언한 내용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간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징계 받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4 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 여호와의 길은 골짜기가 있고, 산과 언덕이 있고, 고르지 않은 길입니다.
22.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모든 골짜기와 산과 언덕을 스스로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절의 선언을 다시 보면, 명령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직접 하시는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은 누군가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소명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으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골짜기와 같은 환경, 험한 산과 같은 고난, 언덕과 돌밭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며 왕의 오심을 준비했을 겁니다. 600여년 후에 로마의 박해 앞에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순교의 열매를 맺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유다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또는 가까운 미래에 나라의 멸망을 이미 경험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고난과 좌절 속에서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폭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갔을 겁니다.
23.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담감이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 남겨진 자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몫입니다. 산과 골짜기와 언덕과 울퉁불퉁한 길 같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몰 이해와 조롱 속에서, 심지어 교회의 타락과 물질숭배의 풍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연약한 손으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24.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을 마냥 기다리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이 신앙이 힘든지 모릅니다. 원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이 드나요? 산과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이 감당 안되는 말씀에 우리는 도대체 무슨 수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5.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 안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신앙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골짜기와 산 같은 세상을 왕의 대로로 만들어 보겠다고 낑낑거리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26. 선지자는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힘겹고 지난한 기다림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5 절이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세워진 왕의 대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또는 가까운 미래의 유다 백성들은 이미 멸망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보다 강력한 앗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으며, 이후에 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골짜기와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고 낑낑거리며 애쓰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유다 왕국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는 정녕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려 섞인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두려움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27.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라고.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는 너희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웃고, 방해하며,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회복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 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풀이나 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멸망과 포로생활을 경험할 유다 백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침공하고 억압하게 될 앗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모든 육체는 풀과 꽃이라는 것입니다. 7 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모든 육체라는 말입니다. 앗시리아가 아무리 무자비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페르시아가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새 말라버릴 풀과 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풀 같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영광도 금새 시들어 버릴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8 절에서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28.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풀과 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마음껏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지자는 9 절에서 이 하나님의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강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고, 걱정되고 힘도 들겠지만 산과 골짜기를 평지로 만들어,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격려합니다. 모든 성읍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소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의 소명입니다.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 우리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29.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말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11 절입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운 소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도, 다시 오실것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30. 대림절의 메시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인 우리 신자들이 외쳐야만 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멀망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 힘들고 두렵고 떨리지만, 감당 안되고 자신도 없고 질 것 같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고,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 주시는 목자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피묻은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위로를 받으며, 이 소망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